

다산포럼

‘교육 독립선언’



송재소
성균관대 명예교수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00일 동안 국정 전반에 걸쳐 실로 의욕적인 개혁 의지를 보여 주었다. 이 개혁 의지가 성공적인 결실을 맺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 문제인 교육 개혁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설정되지 않은 듯 보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교육 문제는 워낙 복잡하여 전체를 한꺼번에 다룰 수는 없다. 여기서는 희망 철학연구소가 2016년 11월 12일에 개최한 학술포럼 ‘2016 교육 독립선언-한국 교육에 대한 철학적 성찰’에서 공포한 ‘교육 독립선언’을 화두(話頭)로 삼아 주로 한국 대학 교육의 문제점들을 짚어 보려

고 한다. ‘교육 독립선언’(이하 ‘선언’)이라 표기한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 발표된 것이긴 하지만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권력에 따라 흔들리고

‘선언’은 한국 사회가 총체적 난국(難局)에 처했는데 여기에는 교육의 혼란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해 왔다고 말한다. 그리고 교육이 이처럼 혼란스럽고 황폐해진 근본 원인을 정권과 자본에 종속된 교육의 구조적 모순에서 찾았다. ‘선언’은 정권에 종속된 교육의 실상을 이렇게 말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이다. 교육은 정치권력의 변화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 정권의 향방에 따라 교육 정책이 이리저리 휘둘리고, 정권의 시각에 따라 교육 내용을 달리하는 오늘의 모습은 한국 사회의 후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렇다. ‘국가 백년대계’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어서는 안 된다. 교육의 효과는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육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단기적, 계량적, 획일

적 성과를 독촉하고 나아가 취업률로 대학을 평가하는 현 상황에서는 참다운 대학 교육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선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권에 따라 BK, HK, ACE, 프라이 사업 등으로 대학을 흔들고, 학생들을 경쟁과 이기주의로 내모는’ 근사한적 정책으로는 백년대계를 세울 수 없다.

그래서 ‘선언’은 ‘교육부를 행정부에서 독립된 기구로 재편성하고 교육 수장을 시민의 자유선거를 통해 선출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한 번쯤 귀 기울여 볼 만한 제안이라 생각한다.

자본에 휘둘리는 대학

자본에 종속된 교육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하나는, 정부가 재정 지원을 미끼로 대학을 흔드는 것이다. 대학은 정부의 ‘하사금’(下賜金)을 따내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다. 대학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뒷전이고 오직 교육부의 입맛에 맞는 일에만 전력을 경주한다. 그래야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이른바 ‘맞춤형 교육’이다. 맞춤형 교육이란 거대 자본을 가진 대

기업의 요구에 맞추는 교육이다. ‘산학 협력’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이 맞춤형 교육은 진정한 의미의 교육이라 할 수 없다. 이는 먼 앞날을 내다본 교육이 아닌 인스턴트식 즉석 교육이어서 백년대계와는 거리가 멀다. 이것은 마치 공장에서 상품을 생산하듯 기업이 공장 써먹을 수 있는 인재를 주문생산하는 것과 같다. ‘선언’에서 “우리 시대의 교육은 통조림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해 내듯 학생들을 찍어 내고 있고, 교수들 역시 패키지 교육의 가이드로 전락해 있다”고 한 이 말도 문재인 정부가 귀담아들여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학이라고 자본과 무관할 수는 없겠지만 대학이 자본에 휘둘려서는 안 될 일이다.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은 “대학은 산업이고 산업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경제전문가인 김진표 씨를 교육부 장관에 임명한 적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직통을 이어받은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기획자문위원장에 임명된 김진표 씨 그리고 경영학을 전공한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2005년의 잘못된 교육 정책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정촌 특·특



최성웅
남부대 방사선학과 3학년

어느 누구보다 자신이 하는 일을 열정적으로 앞장서서 하는 사람을 우리는 리더라고 부른다. 진정한 리더들이 조직에 주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 번째 타인의 의견을 경청한다. 두 번째 열의가 있으며 긍정적이다. 세 번째 문제에 맞서 싸우며 낙관적이다. 네 번째 직접적이고 솔직하며 조직을 잘 이끌어 나간다. 다섯 번째 유능하고 지혜롭고 책임감이 있어야 하며 총명함을 가져야 한다 등일 것이다.

진정한 리더 임진왜란의 영웅 이순신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살펴보자. 이순신 장군은 자신의 지위와 상관없이 맡은 일에 매우

리더란 어떤 사람일까

성실하고 열의 있게 임하였다. 훈련 뒤 음식이 남으면 반납할 정도로 정직하고 원칙에 충실했고 부하들에 두터운 신뢰를 받았다. 그는 무관으로서 늘 만전지계(萬全之計)란 표현을 사용했다. 모든 일에 만전을 기하고 무원칙한 행위를 싫어했음을 알 수 있다. 궂은 일에도 솔선수범하는 자세와 두터운 신뢰로 쌓인 리더십이 부하들과 혼연일체가 되어 위기를 극복하고 탁월한 전략 개발로 취약한 전력을 극대화시킨 점도 이순신 장군의 진정한 리더십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이처럼 조직은 리더에 따라 성장한다. 이는 리더의 수준이 조직의 수준이라는 말과 같다. 또 리더가 조직에 주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21세기 무한 경쟁 시대에 그의 리더십이 유난히 빛을 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리더의 무능함이 조직에 영향을 주는 것이 결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유형들을 검토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무능한 리더가 조직에 주는 피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지난 2014년 4월 16일에도 무능한 리더가 있었다. 476명 가운데 172명만이 생존했고, 300명이 넘는 사망·실종자가

발생했다. 세월호에는 제주도도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 324명이 탑승해 학생들의 피해가 컸다.

세월호의 비극의 시작은 무책임한 리더들 때문이다. 엉뚱한 교신, 골든타임 지연, 선장과 선원들의 무책임, 해경의 소극적 구조와 정부의 뒷배 대처 등 총체적 부실로 최악의 인재(人災)로 이어졌다. 무능한 리더가 자신의 무능함을 모르고 결정을 회피하며 잘못된 판단, 잘못된 소신 때문에 벌어진 비극이다. 진정한 리더라면 어땠을까?

리더는 모든 조직에 존재한다. 국가와 기업, 정당에도 존재한다. 학교와 계모임, 동호회에도 있다. 리더들은 많지만 리더들의 영향력의 크기는 다 다르다. 리더는 유능하고 지혜로워야 한다. 리더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자신이 책임지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리더가 무능하면 세월호 사건처럼 조직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조직을 망가뜨릴 수 있다. 그러므로 리더에는 유능한 사람을 선발해야 한다.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부터, 대학교 입학 후 학과 대표 3년. 이처럼 내 자신이 학생

들의 대표이자 리더가 되려고 노력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 한 학생이 다수의 학생에게 금품 갈취와 폭행을 일삼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 누구도 선뜻 나서서 말리지 않았다. 나는 친구들의 불편한 학교 생활을 조금이나마 바로잡고자 학교의 대표가 되자고 다짐했다. 선거에 출마해 학생회장에 당선됐다. 가해 학생의 폭력을 막으려 했으나 그 친구는 본인의 잘못을 깨닫지 못해 안타깝게도 경찰 조사를 받게 했다. 가해 학생은 조사 후 징계 조치로 퇴학을 당했고 이후 우리 학교에선 학교폭력이 사라지게 됐다. 그 일로 경찰청으로부터 학교폭력 예방위원 위촉장을 받았지만 썩 유쾌한 기분은 아니었다. 내가 생각하는 리더란 구성원을 배제하는 것이 아닌, 융화되어 어울릴 수 있도록 이끄는 사람이 리더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필요성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닌 나를 믿고 따를 수 있는 팔로워(follower)를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려울 점점 각박해지고 이기주의가 팽배해가는 요즘 가장 필요한 리더가 아닐까 생각해보는다.

기 고

독서를 위한 변명



류재준
광주시 정책기획관실 전문위원

분주함이 가득한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은 온통 쫓겨간다. 주위를 살펴볼 틈새 여유는 이미 가슴에서 멀어지고 밤하늘의 별빛은 아득하다. 어느덧 책임가는 사치가 되었다. 신영복 선생은 “독서는 실천이 아니며 다리가 되어주지 않는다. 그것은 역시 한 발 걸음이다.”라고 했다. 즉 책을 읽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경험인 과거의 실천을 목발 삼아 각자의 걸음으로 인생을 걸어가야 한다.

필자에게 책을 읽는다는 것은 현실에서 멀어지고, 이상과 무기력에 다가서는 실천의 결핍을 견뎌야하는 고단한 여행이었다. 삶에 진실하지 못한 태도, 비겁한 마음을 숨기고 적막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서 딱지는 대로 읽었다. 때론 눈물을 흘리고 상처받은 속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단지 그뿐이었다.

어느 중년 여성이 소설가 무라카미 하

루키에게 물었다. “책을 자주 읽는 사람과 책을 거의 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쪽의 인생이 더 행복할까요? 전반적으로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이 더 낙천적이고 인생을 즐기는 느낌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무라카미 하루키는 “설령 좀 불행하다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 좀 받는다 해도 책을 읽지 않는 것보다는 책을 읽는 인생이 훨씬 좋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라고 대답했다.

독서가 인생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에 나침반 기능을 하며 삶의 가치를 풍요롭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를 부인할 수 없다.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는 다양하다. 자아를 찾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결론은 자신을 위해서 읽는다는 것이다. 그럼 독서를 어떻게 해야 할까? 체계적으로 목록을 작성해서 읽을 필요가 있다. 세상의 수많은 책들을 다 읽을 수는 없다. 일주일에 한 권을 읽는다 해도 1년 동안 고작 52권을 읽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평생 동안 열심히 독서한다고 해도 겨우 3000권에서 4000권에 불과하다. 그러다보니 책을 구입하지만 정작 읽지도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도서 선정이 너무나 중요하다. 책을 선택할 때는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와 수준

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읽고 싶은 책과 꼭 읽어야 할 책을 적당히 배분해서 읽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단순히 책의 권수에 집착하거나 읽기에만 몰두해서는 안 된다. 정독하는 자세로 눈으로 쓰고, 손으로 읽어야 한다. 또한 책의 의미와 사상이 단지 책 속에 머물기보다는 머리에서 가슴, 가슴에서 손과 발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책은 시대상을 반영하고 역사성을 담고 있다. 지금은 고전으로 읽히고 있는 소설 ‘추홍길씨’, ‘호밀밭의 파수꾼’, ‘닥터 지바고’, ‘갈매기의 꿈’의 공통점은 한때는 출판 금지를 당하거나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작품이다. ‘아Q정전’과 ‘이방인’의 결말 부분은 의미심장하다.

‘아Q정전(1921년)’에서는 죽음을 앞둔 주인공 아Q가 생각하는 것은 동그라미를 크고, 반듯하게 잘 그리는 것이다. ‘이방인(1942)’에서 주인공 미르소의 유일한 소원은 사형 당해 죽을 때 많은 구경꾼이 와서 죽오의 함성으로 맞아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설국’(1948)과 ‘무진기행’(1964)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만 사랑에 대한 인식은 비슷하다. 사람들은 삶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사랑을 갈망한다. 첫 마음은 설렘과 조바심으로 가득하지만 그 다음에는 욕정이 차고 넘친다. 그리고 사랑은 중

잡을 수 없는 미로에 빠져든다. 길을 잃어 버린 사람은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깨닫게 한다.

독서를 통해서 영감을 얻기 위해서는 깊은 사유를 해야 한다. 책을 읽을 때 가능한 밑줄을 긋거나 중요한 구절을 별도로 메모할 필요가 있다. 책을 읽고 나서는 항상 독서노트를 써야 한다. 줄거리 요약이나 느낌을 정리하기 어려우면 의미있는 글귀를 별도로 추려서 적을 필요가 있다. 또한 책 읽은 후의 감상이나 생각이 주어진 환경이나 세월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야 한다.

철부지 시절 필자는 책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세속적 욕망이 강렬했다. 하지만 그것이 헛된 망상임을 알게 되었다. 아무리 책을 많이 읽는다 한들 인생의 긍정적 변화와 실천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비울 줄 알아야 하는 평범한 진리 앞에서 지금은 좋은 책을 만나면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는 습관이 생겼다.

인생의 시간은 한정돼 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생활하고 있는 것 같다. 어지러운 삶에서 잠시 벗어나 책과 함께 사색과 사유로 자신을 성찰해보면 좋을 듯싶다. 어느덧 독서하기 좋은 가을의 문턱이다.

社說

“죽으면 빈손인데” 그녀의 아름다운 미소

환하게 웃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다. 저처럼 밝은 표정만 보면 그 누가 말기 암 환자라고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는가. 마치 인생을 달관한 듯한 저 환한 미소를 보고 있노라면 아무리 불우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도 잠시 자신의 불행을 잊을 것만 같다.

30년을 식당에서 일하며 모은 1억 원의 재산을 기부한 순천의 황정자(69) 씨 이야기다. 순천 황천면에서 태어난 황 씨는 가난한 집안 형편 탓에 열아홉 살 때 서울로 올라갔다. 이후 30여 년간 식당에서 일하며 역대의 돈을 모았다. 그러던 지난 2000년 자신이 살던 서울 집이 재개발되면서 고향인 순천으로 내려왔다.

300만 원짜리 15평 아파트에서 홀로 살던 그녀는 지난 5월 폐암 4기 판정을 받았다.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는 의사의 말에 어찌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마는 오히려 그녀는 힘있게 일하는 어려운 이웃을 생각했다. “불이 나면 목숨 걸고 일하면서도 장

비는 열악하고 감당도 자기 돈으로 사서 써야 한다는 뉴스를 보고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평소 언론 등을 통해 소방공무원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근무의욕을 북돋아 주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다는 생각을 해 오던 자였다.

순천소방서는 그녀의 뜻을 전남도에도 알렸고, 황 씨의 기부금은 전남민재육성재단으로 기탁돼 소방공무원 자녀를 위한 장학금으로 쓰이게 됐다. 그녀는 지난 2011년부터 ‘지금은 라디오시대’를 통해 매주 1만 원씩 꾸준히 기부하는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베풀어 왔다고 한다.

“나이가 들다 보니 좋은 일을 하면 보람되고 기분이 좋아진다”며 환하게 웃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다. 그녀의 선행이 세상에 더 많이 알려지고 이를 계기로 나눔 문화 또한 널리 확산됐으면 한다.

5·18 계엄군 시민 상대로 전쟁을 벌였나

5·18 항쟁 당시 계엄군이 시민들을 상대로 51만 발의 실탄을 쏘고, 200발의 수류탄까지 투척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군부가 작성한 ‘광주사태 시 계엄군 실탄 사용 현황’을 한 언론이 확인한 결과, 계엄군은 개인 화기는 물론 대전차 로켓탄에서부터 TNT폭약 등 지상전에서 동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화력을 광주에 쏟아 부었다는 것이다.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치렀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국군기무사령부에 보관된 이 자료에 따르면 계엄군 작전기간(7일간) 중 계엄군은 51만2626발의 각종 실탄을 사용했다고 한다. 종류별로 보면 개인 화기인 M16이 49만 7962발, 기관총 1만 759발, 권총 실탄도 2754발이 쏘였다. 수류탄도 194발을 사용했다고 적혀 있다. 군은 ‘실탄 및 수류탄의 80%는 공수부대에서 사용했다’고 기록했다.

공수부대가 별도로 작성한 ‘진압 과

정 사용 실탄량’ 문서에도 공수부대는 M16 소총 외에 중화기인 M60·CAL 50 기관총을 수천 발 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 자료에는 1회용 대전차로켓탄 50발을 쏘고, TNT 폭약도 1200kg이나 사용한 것으로 돼 있다.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의 상급부대인 전투병과교육지상전에서 동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화력을 광주에 쏟아 부었다는 것이다.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치렀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계엄군을 지휘했던 전교사가 5·18 직후 발행한 ‘광주소우사태 교훈집’에는 ‘작전 기간 중 1인당 59발을 소모했다’며 실탄 과다 사용을 지적했다. 각종 무기과 실탄의 사용 총량이 나온 만큼 이제 진압부대 별 작전내용과 화기 사용 내역을 밝혀야 할 것이다. 전쟁에 참여한 화기가 사용된 점에 미뤄, 그동안 ‘지위권 발동’ 차원의 총기 사용이었다는 신군부의 주장은 억지임이 밝혀졌다. 최초 발포 명령자를 밝혀야 할 또 하나의 이유이다.

無 等 鼓

목포 출신 극작가 차범석(1924~2006) 선생은 7년 동안 구상한 작품 한 편을 2003년 세상에 내놓는다. 바로 ‘옥단애’다. 작품은 같은 해 12월 이윤택 연출로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대극장 무대에 올려졌다. ‘옥단애’는 목포 사람들이 ‘옥단애’라고 부르는 호칭의 사투리 발음이다. 그렇다면 옥단애는 누구일까?

“옥단애는 실존 인물이에요. 물지게를 지고 조선인들이 살던 북촌에 물을 길어다 주고 돈을 일 마씩 받는 물장수였어요. 일본 경찰에게 모진 고문을 당해 정

옥단애 길

상대상이었던 박재철(법정 스님의 속명)이 운명적인 첫 만남을 가진 정광정 해원을 비롯해 차범석·이매방·김우진의 흔적과 마주한다. 한국전쟁 이후 풍나물을 길러 인근 시장에 팔았다는 ‘콩나물 동네’ 등 목포의 생생한 역사가 골목길마다 배어 있다.

오늘은 일본에 나라를 빼앗겼던 107주년 ‘경술국치일’(庚戌國恥日)이다. 목포 여행을 가거든 목포 근대역사관(옛 일본 영사관)뿐만 아니라 ‘옥단애 길’을 찾아 식민 시대의 아픈 역사를 돌아보는 것도 좋겠다. /송기통 여행부장 song@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7-9500)
정 지 부 220-0632	문 화 매 디 어 부 220-0664	다 지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